

운명의 옷장

1 장

"방 만들기"

학교의 마지막 날이었고 운명은 그녀의 자리에 거의 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종소리가 울리면 좋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여름 캠프에 간다는 것을 알았 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 여름 캠프는 평범한 여름 캠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교회에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게임을하고 노래를 부르고 예수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옛 친구와 새로운 아이들이 만날 수있었습니다.

첫날, 모든 사람들이 줄 서서 로그인했습니다. 운명은 친구 인 베카를 보았습니다.

"안녕 베카"운명이 말했다.

"어이 운명, 나는 우리가 다시 같은 계급에 있기를 바랍니다."베카가 말했다.

레베카의 어머니는 그들을 돌키며 "당신은 운명과 같은 계급에 있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너무 재미있을 것이다."베카가 말했다.

레베카의 어머니는 선생님을 쳐다 보면서 웃으며 답했습니다. 둘 다 대답이 예라는 것을 알았 기 때문입니다.

'방이있어?'레베카 엄마에게 물었다.

"물론,"선생님이 말했다.

운명과 베카는 서로 미소 지으며 웃으며 교실로 건너 뛰었습니다.

교회의 여름 캠프 기간 중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봉사 활동은 어린이와 그들이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운명과 베카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운명은 언젠가 예수 께 노래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분을 노래합니다."베카가 말했다. "우리가 그를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그가 앉아 있고 우리의 말을 듣고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운명이 말했다.

"좋아, 해보자."베카가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께 노래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앉아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어느 날 일요일, 선생님은 레베카 (Rebecca)를 데리러 서비스 중 솔로 (solo)를 불렀습니다.

"운명이 나와 함께 노래 할 수 있니?"그녀가 물었다.

"너 혼자 할 수있어."선생님이 말했다. 그녀는 베카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은 더 잘 부른다."베카가 말했다.

"왜 그런가?"선생님이 물었다.

"우리가 예수 께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앉아서 우리 말을 듣는다"고 베카는 말했다. "그는 운명의 목소리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 이제 이해 해요."선생님이 말했다.

그래서 그 일요일에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 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운명의 할머니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 날에 설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Destiny에게 좋은 아이디어를주었습니다. 운명의 할머니는 당신의 옷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운명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옷장을 청소해야합니다."

운명은 교회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옷장을 즉시 청소해야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운명의 어머니는 딸이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쓰레기 봉투가 필요합니다."운명이 말했다.

"왜 그렇게 많은 가방이 필요한가요?"엄마에게 물었다.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방을 만들어야한다"고 운명이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할머니가 말한 것을 기억했다.

그녀가 옷장을 청소하고있을 때 데스티니는 "나는 베카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새 곳에 대해 말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는 똑같은 일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끝나면 내일 캠프에서 그녀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운명은 청소하고 청소했다. 그녀는 계속 물건을 옮기고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심지어 특별한 것들을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니?"그녀가 물었다. 운명의 엄마는 가득 차 있던 모든 가방을 보았고 그들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이 멋진 물건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새롭고 방금 당신을 위해 구입했습니다."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방을 만들어야 해."운명이 말했다.

"무엇을위한 방?"엄마에게 물었다.

"그건 비밀이야."그녀가 말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없다"고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운명이 말했다.

"아니,하지만."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방을 만들어야 해.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녀의 엄마는 데스티니가하는 일과 다른 일을 느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끝내야한다고 느꼈다.
"운명은 왜 우리가이 모든 것들을위한 또 다른 장소를 찾지 않는가?"그녀의 엄마에게 물었다.

"좋아."운명은 그녀가 청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자는 어때?"엄마에게 물었다.

"승인. 그러나 그것을 다른 방에 넣어 라."운명이 말했다.

옷장은 마침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운명은 의자 2 개를 가져다가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들어갔다 앉았다. 그녀 앞에서 다른 의자를 보면서 그녀는 "예수님,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정말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보면서 "그가 언제 올까요?"하고 생각했습니다.

"잘 예수님, 내 말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루에 당신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마친 후 그녀의 이름을 들었다.

"운명."

"너 니가 그거야?"그녀가 물었다.

"그것은. 네가 오늘 한 일에 대해 다 알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했다 "고 말했다.

"와우, 예수님, 정말로 당신의 말을들을 수 있어요."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너의 말을들을 수있다. 당신은 나와 이야기하고 언제든지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운명이 물었다.

"그렇습니다."그는 말했다.

"오, 이런, 내 친구 베카 한테 말하면 돼?"데스티니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그는 말했다.

"나는 내일 그녀에게 말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비밀 장소가 될 것"이라고 **Destiny**는 말했다.

다음날 운명이 너무 흥분하여 아침을 거의 먹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베카에게 비밀을 말하기 위해 여름 캠프에 오기를 거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교회에 갔을 때, 그녀는 엄마에게 친절을 전하지 않고도 차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흙을 교실로 뛰어 내려 갔다.

"베카, 베카, 내가 너에게 말할 게있어."운명이 말했다.

"그게 뭐야?"베카가 물었다.

"예수는 내 옷장에서 나와 이야기했다."운명이 말했다.

"뭐? 어떻게? "베카가 물었다.

"할머니가 일요일에 당신의 벽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운명이 물었다.

"예,"베카가 말했다.

"잘 해냈어."운명이 말했다.

"어떻게?"베카가 물었다.

"집에 가서 옷장을 청소하고 앉아서 나랑 이야기 할 수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운명이 말했다.

"정말?"베카가 물었다. "나는보고 싶다"고 말했다. 운명은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있었습니다.

"숙면하자."운명이 말했다.

"재미있을거야."베카가 말했다.

베카는 집에 가서 데스티니의 집에서 밤을 보낼 수 있는지 엄마에게 물었다.

"나는 베카를 모른다. 나는 **Destiny 's Mom**에게 전화해야 할 것입니다,"그녀의 엄마는 말했다.

"지금 전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베카가 말했다.

Becca의 어머니는 **Becca**가 "지금, 지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밤새도록 가방을 싸서 **Destiny**의 집으로 차를 몰 왔습니다. 운명의 엄마는 문을 열었고 베카는 운명의 방으로 곧장 달려 갔다.

"그 소녀들은 무언가에 달려 있습니다."베카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가 웃고있을 때 운명의 엄마가 말했다. "나는 내일 캠프에 데려다 줄거야."그녀가 말했다.

데스티니와 베카가 베카의 물건을 버리는 방에있었습니다.

"준비 됐니?"운명이 물었다.

"예,"베카가 말했다. 운명은 다른 의자를 가져 와서 옷장에 앉혔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나는 베카를 데려 와서 너에게 말했어."운명이 말했다.

갑자기 베카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알아. 나는 너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보고 있었다."그가 말했다.

그들은 웃으며 시간이 흐른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예수는 말했다, "당신이 소녀를 위해 당신이 내일 동안 당신의 나머지를 얻을 수있다 그래야 자러 갈 것이다 시간이다." "

예수님, 우리는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해야만합니까?"그들은 물었다.

"그렇습니다."그는 말했다. "베카, 나도 만나려고 비밀 장소를 갖고 싶니?"예수 께서 물으 셧다.

"나는 그것을 매우 원합니다."베카가 말했다.

"굿나잇 예수님."그들은 옷장에서 나온 후에 말했다.

그들은 베카가 앉아서 "운명, 내일 집에 갈 때, 나는 옷장을 청소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있는 비밀스런 장소를 가질 수있다"고기도하면서 잠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둘 다 열심히 웃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엄마가 들었고 방에 들어왔다.

"당신은 여기서 두 명입니까?"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웃으며 예수님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그들은 예수님과 서로 윙크를하면서 말했다.

©

2008 년 8 월

으로

베키 드윅